

2년 전인 지난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4공단에 소재한 휴브글로벌에서 불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후 불화수소가 공기를 통해 대량 퍼지면서 인근 지역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고는 안전관리측면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사업장은 물론 관할 소방서, 구미시 모두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피해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 너무나 허술한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현실에 구미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분노했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전면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돌입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난해 12월 초 모습을 드러냈다. 관계부처, 지자체, 소방당국, 안전보건공단까지 한데 모여 효과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미에 문을 연 것이다. 그로부터 반년이 흐른 지금 구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달라진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해보고자 구미119화학구조센터를 찾아가봤다.

화학사고 대응의 최전선 '구미119 화학구조센터'

범부처 통합협력체계 구축 통해
사고에 신속 대응

취재 연슬기 기자 skyway@safety.or.kr · 채정민 기자 chae@safety.or.kr

정부 최초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5월 중순.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느낄 수 있는 온화한 날을 기대하며 구미를 찾았지만, 시작부터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대구와 더불어 더위의 상징적인 지역답게 이미 낮 최고 기온이 30℃를 웃도는 등 무더운 날씨가 구미를 사로 잡고 있었다. 연신 흐르는 땀을 닦으며 도착한 구미119 화학구조센터의 첫 인상은 '분주함'이었다.

소방방재청, 고용노동부, 환경청,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구미시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만큼, 다양한 안전분야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은 각각 화학구조팀, 환경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으로 나뉘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통합 지도·점검하고, 각종 화학사고에 협력하여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어느 한 팀만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도 통합적인 대응체계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손과 발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회의와 훈련을 거듭하고 있었다.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는 틈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팀이 있었다. 10여 명으로 이루어진 그들은 파란색 보호의를 입고 피약별 아래에서 같은 동작의 훈련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내 구미119화학구조센터의 대원들이었다.



강도 높은 훈련 통해 화학사고에 철저 대비

구미119화학구조센터의 활동은 크게 '평시'와 '사고발생 시'로 구분된다. 먼저 평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산업단지 소재 화학물질과 위험물 및 가스 등 취급사업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훈련도 평시의 주요 역할이다. 이들은 매일 반복적으로 ▲CBRNE(Chemical, biological, radioactive, nuclear, explosive) 전용장비, 차량 등 보유장비 사용방법 숙지 훈련 ▲화학사고 대응절차 등의 기본행동요령 훈련 ▲화생방종합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실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위험물취급사업장과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화학사고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고발생 시에는 즉각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관할 소방서 및 시도 특수구조단과 함께 구조 활동을 펼치게 된다. 재난현장에서의 인명탐색·구조, 긴급구조기관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응급처치 및 이송, 현장접근 통제 등이 세부적인 활동사항이다. 여기서 화학사고 대응 및 구조활동 현장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사고현장 도착 즉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탐지·확인을 실시하고 주민을 대피시킨다. 이후 인체제독, 병원후송 등의 인명구조 활동과 동시에 누출원 차단을 진행한다. 끝으로 오염원 제독 후 수거·밀봉, 지역제독, 오염물질 수거처리 순으로 구조 활동이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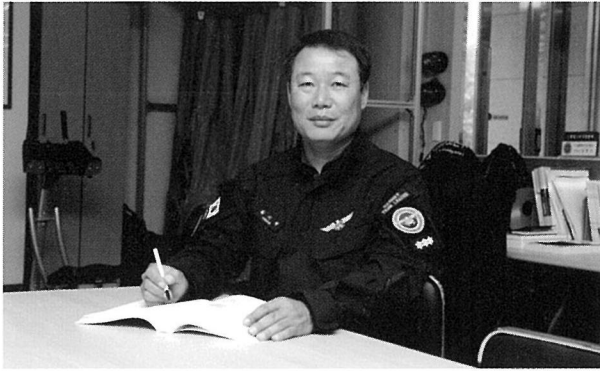
화학사고에
철저한 대비



센터와 사업장 안전관리자 간 유기적 협력 필요

현재 구미119화학구조센터는 보다 완벽한 현장대응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제독장비, 화학장비, 생물화학장비 등 20종 182점의 전문장비와 장비운반차 및 지휘수송차량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 중에 있다. 이 같은 보강작업이 완료되면 센터는 더욱 탄실한 대응체계를 갖추게 된다. 허나 센터 대원들은 아직 더 부족한 것이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것은 바로 산업현장의 관심과 협력이다.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의 재난을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센터와 사업장 안전관리담당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다. 대원들의 바람처럼 산업현장과 정부가 하나 되어 재난에 완벽히 대응을 하는 체계가 시급히 우리나라에 정착되기를 기원해본다. ☺

미니인터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유

황지현
구미119화학 구조센터장(소방령)

Q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관련 사업장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 주기적인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사업장 전 직원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요인들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사고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행동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평소 개인별 소방훈련절차를 반복 숙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출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대응정보에 따라 보호 및 방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소방계획서에 편성된 조직과 임무(통보연락반, 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은 훈련계획서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 본인들 스스로 사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상황을 잘 아는 사업장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한 출동소방대에게 사상자 또는 위험물질 등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신속한 사고수습에 매우 중요한 절차이니 꼭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Q 끝으로 국민들과 산업현장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대규모 화학재난사고 발생시 2시간 이내에 완벽한 사고수습을 위한 현장대응활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의 노력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